

중부권

“천천히 자연을 느껴보세요”

장흥 한옥·청국장 마을 등 ‘느린 삶’ 찾는 도시인 늘어

“슬로시티(Slow City)’ 1번지 장흥에서 느림을 만끽하세요.”

지난 2007년 12월 장흥 유치면 일대와 장평 우산지구는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국제 인증을 받았다.

이곳을 찾아 장수풍뎡이 체험학습과 한옥 숙박을 하거나 농약없이 ‘지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느린 삶’을 음미하는 도시인들이 늘고 있다.

장흥지역의 ‘느려서 아름답고, 불편해서 즐거운’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마을들을 소개한다.

◇한옥마을 신덕마을= 한옥 민박단지(8동)가 조성돼 있다. 민박단지 주변에는 비자나무 아래 야생낙차 체험 산책로와 월암마을 돌담길, 소나무 숲속의 표고버섯 재배단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청국장 봉덕마을=청국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직접 만든 청국장을 담아갈 수 있다.

◇한옥마을 신덕마을= 한옥 민박단지(8동)가 조성돼 있다. 민박단지 주변에는 비자나무 아래 야생낙차 체험 산책로와 월암마을 돌담길, 소나무 숲속의 표고버섯 재배단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친환경 농업단지 월암마을= 2만여평의 농지를 확보하고 어성초와 녹차, 삼백초, 작두콩을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애벌레의 꿈 반달마을=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버린 폐목을 먹고 자란 장수풍뎡이를 비롯해 사슴벌레, 장수하늘소, 반딧불이, 가재, 물방개 등 곤충을 관찰할 수 있다.

매년 7월말에 장수풍뎡이 축제를 열고, 장수풍뎡이 생태관찰과 표고버섯 따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녹차마을 수덕마을= 유치면에서 유일하게 수물되지 않는 마을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야생낙차와 표고, 매실, 누에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린 ‘2008 세계녹차 콘테스트’에서 금상을 수상한 청매전을 제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평면 우산리 연동, 우산마을과 병동리 월곡, 운곡, 병동마을, 장항마을은 ‘느림의 생태공동체 마을’, 친환경 농산물을 위한 지렁이 분변토 농법의 메카를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슬로시티는 화려한 불거리보다 시골 의갓집 같은 순수함과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전통문화와 역사, 음식 등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밀리면 끝질” 사할건 영역다툼 강진군 칠량면 비닷가에서 썩어 두머리가 영역 다툼을 하는 큰입을 크게 벌리며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고 있다. 눈이 튀어나와 ‘철목어(凸目魚)’로도 불리는 썩어는 공기호흡을 하는 특성이 있다. <강진군 제공>

나주경찰관 ‘음주운전 해임’ 시끌

“처벌 가혹하다” 배경 싸고 뒷말 무성

나주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2명의 경찰관이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잇따라 적발돼 해임되거나 자진 사직한 것으로 알려져 뒷말이 무성하다.

나주경찰은 최근 노안파출소 소장인 A경위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직했으며, 금천파출소 직원인 B씨도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해 해임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나주경찰은 “지난 16일자로 노안파출소장과 금천파출소장을 새롭

게 인사발령하는 등 경찰의 음주운전에 강도 높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파출소 소장이 음주운전 행위로 자진 사직하고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갑자기 2곳의 파출소장을 갑자기 경질하다 보니 역풍이 분분한 상태다.

직인 A씨는 “요즘 경찰 조직 분위기가 심각하다 보니 일선 경찰관의 순간판단 잘못에 대한 처벌이 가혹한 일장이다”며 “이 때문에 처벌 과정에 대한 입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국 나주경찰서장은 “2명의 파출소장을 인사발령한 것은 경찰관의 근무기강을 세우기 위한 정면투박하다”며 “이번 음주운전 때문에 사직한 경우는 사적인 부분으로 바뀔 수 없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노안파출소 소장인 A경위는 광주에서 새벽까지 술을 먹은 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하고 출근한 것을 조직 내부에서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때문에 사직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극화향기 따라 떠나는 백제여행

영암군, 29일부터 ‘왕인 국화축제’

영암군에서 국화꽃을 감상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백제시대로 돌아가는 체험여행을 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영암군은 오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24일간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2010 왕인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또 ‘2010 영암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와 ‘국화축제’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달간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왕인박사와 함께하는 영암 체험여행’이란 주제의 다양한 체험행사를 연다.

이번 국화축제는 국화작품 13종 10만여 점을 전시하는 등 왕인박사유적지가 1억 송이 국화로 단장된다. 왕인문화국화영원관, 만화캐릭터, 팔각장 등 각종 국화 조형

물과 현수국·분재국·다륜대자 등 국화 분재가 전시된다. 군은 국화터널 조형과 대형 국화홍보담을 설치하고 어린이를 위한 만화캐릭터 12점을 신규제작 전시한다.

국화 축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암 체험여행’은 1600년 전 백제의 우수한 선진문화를 일깨워 전해 ‘아스카 문화’를 꽃피우게 한 영암출신 왕인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선양하고자 일본으로 건너가는 과정을 재현한 ‘왕인 박사 일본에 가오!’와 마술쇼 및 사물놀이, 백제 의상 체험, 왕인 학당 등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중부취재본부=이상훈·백성민기자 ish@

“구민 문화공간 확충”

광산구, 다목적 복합관 완공

광산구 우산동에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이 건립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광산구는 총사업비 47억2000만원(건축비 25억원·부지매입비 22억원)을 투입해 우산동 1601-7번지 부지 1119㎡에 연건평 1639㎡의 지상 4층 규모의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을 최근 완공했다. 건축부지는 옹도폐지된 법원 등기소를 매입한 것이다.

복합문화공간 1층에는 우산동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해 지난 19일 문을 열었다. 기존 우산동 자치센터는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적어 주민과 공직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2층은 주민프로그램실, 운동처방교실(보건소), 3층은 다목적실(대회의실), 4층은 독서실이며 옥상은 야외공연장으로 사용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다목적 복합문화공간 건립에 따라 우산동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해 주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나주 1250억원 투자유치

수도권 5개 기업 협약

나주시가 민선 5기에 들어서 CEO 출신인 임성훈 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의지에 따라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 농수축산물 가공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이지바이오시스·한국중합금속·경광산업·호산 P&T·공에프엔비 등 5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총 1250억원을 투자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 기업들이 입주할 경우 고용인원만도 2110명으로 투자규모와 고용효과가 커 연관산업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에도 (주)극동ENG와 (주)카울넷 및 (주)엠피스코 등 3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 오는 2012년까지 210여여원을 투자하는 협약식을 체결, 180여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창출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한우·벼·낙지·뽕잠어·김·돼지·표고·키조개·토마토·양파

장흥 이끄는 ‘10가지 힘’

한우·낙지·표고버섯·키조개·매생이 등 농어업 특화 10대 품목이 장흥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차산업이 55%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어업지역이다. 10대 품목 가운데 낙지·표고버섯·키조개·매생이 생산량은 전국 1위이며, 5만1557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한우는 전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선 5기 군수에게 바란다’ 토론회에서 이명홍 군수가 군민에게 밝힌 자료에서 나타났다.

6월말 현재 10개 품목의 연간소득은 한우(2828 농가) 2214억 9000만원을 비롯해 ▲벼 889억원 ▲낙지 270억원 ▲뽕잠어(양만업)

230억원 ▲김 130억원 ▲돼지 107억원 ▲표고버섯 94억원 ▲키조개 90억원 ▲토마토 84억원 ▲양파 68억원 순으로 밝혀졌다.

장흥지역 최대 소득원인 한우는 지난 2002년말 2만1270마리를 사육, 748억원의 소득을 올려 벼(미백)의 소득인 989억원에 못 미쳤으나, 2003년에는 2만1618마리로 늘며 연간소득역시 920억원으로 증가해 벼 소득을 앞질렀다. 특히 매년 한우 사육마리수가 증가해 올 6월말 현재 5만1557마리로 2003년보다 2배가량 뛰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Advertisement for '신축 매매·임대 (원룸·투룸)'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장흥부동산 중개컨설팅. Includes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Advertisement for 호남랜드공인중개사, listing properties like 쌍촌동 내대지, 쌍촌동 2차선도로 내대지, 상무지구 내대지(업무용지), and 나주 문평전원주택지.

Advertisement for 믿음 공인중개사, listing properties like 첨단지구 임대,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and 첨단근지역.

Advertisement for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listing properties like 대불산단 공장매매, 장성동화 공장매매,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북구 동림동 토지매매, and 광산구 월전동 토지매매.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listing services like 호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